

매일 만나

2022. 2.

사무엘하 12장 ~ 22장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

이월

Monthly Plan

SUN	MON	TUE	WED	THU
		1	2	3
6	7	8	9	10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7	28			



행복하게 하는 복음

〈경청의 힘〉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 말에 귀 기울여주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뿐 일지 모르지만
곧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보이는 관심의 햇살은
말하는 사람의 꽃봉오리를 덥혀서 만개하게 하고
그 빛 속에서 당신이 그 꽃을 감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경청의 힘〉

"요즘 어떠세요?" "힘이 들어 죽겠어요."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나흐만은 살짝 생활의 지혜를 귀뜸해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누가 묻거든,
당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형편 없는데요"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게 좋지 않다고?
정말 좋지 않은 게 어떤 건지 보여주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누가 묻거든,
당신이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좋은데요"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태가 좋다고?
그렇다면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 보여주어야겠군!"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언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따라 각각 다른 열매가 열립니다.
행복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언어를 사용해보세요.
그 열매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FRI	SAT	
4	5	
11	12	
18	19	
25	26	



Holy Bible survey

사무엘하

안광모 목사

I. 배경과 주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하나의 책으로, 사무엘상의 내부적인 배경과 흐름이 영적인 어둠의 시기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끝무렵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면,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라고 하셨던 다윗의 통치를 기대하게 한다. 사울의 등극은 온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기쁨이었지만 그의 통치와 행적은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엘서의 외부적인 배경은 가나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조용한 때였다. 앗수르는 막 중흥기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서쪽으로는 확장할 여력이 없었다. 이 제국은 다윗보다 약 1세기 후에 살만에셀 3세 때 가장 번성하게 된다. 애굽도 제3중간기로서 외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시기였다. 이 기간에 애굽의 침입은 없었던 것 같다. 소아시아에는 헷 제국이 멸망하고 몇몇 도시 국가들이 남아 있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상황은 가나안 땅의 많은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아람,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버니게,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들이다. 이스라엘은 다윗 통치하에서 이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다윗은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영향력을 더 확장하여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과 남으로는 애굽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

사무엘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와 더불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불린다.

기록 시기도 다른 역사서들에 비해서 먼저 쓰인 책들이고 신학적 주제도 같다. 이들은 모두 신명기와 밀접한 신학적 관계를 갖는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기록된 여호와와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설명하며 순종할 때 오는 축복과 불순종 때의 저주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한다. 그래서 사무엘하도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무엘하의 내용에만 근거하여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사무엘하는 남북 분열 왕국 체제 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날 다윗의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던 과정과 또 다윗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있음을 보여 주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아울러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던 다윗 왕국도 인간의 죄로 인한 왜곡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음을 보여 줌으로써 인간은 결국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 메시아가 세우실 메시아 왕국만이 이를 보장해 줄 수 있음을 각성시켜 주고 있다.

한편 사무엘하는 다른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일부분에서는 연대기를 무시하고 주제별로 기록하는 등 편집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저자가 특정 사안, 예컨대 왕권 교체의 정당성이나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 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II. 역사적 정황

사무엘하는 내용에 따라 제1부 1-10장, 제2부 11-20장, 제3부 21-24장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제1부 1-10장에서는 다윗의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사울 왕의 전사 이후 다윗이 간음 및 살인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의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의 즉위 과정과 연이어진 왕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종교, 법적개혁 및 성공적인 주요 정복전쟁의 기사를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제1-5장은 사울 사후부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여호와 신앙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운 인본주의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면 불행한 일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순종한 사울을 폐하고 그를 대신하여 택하신 새 왕 다윗이 등장하여 하나님께 합한 신정 왕국을 건설, 정착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다. 다윗은 사울이 죽자 헤브론으로 가서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한다(2:1-4).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2차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며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는다(5장).

다음으로 제6, 7장은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와 다윗 언약체결에 대하여 다룬다.

다윗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약 70년간 기랴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와 안치한다. 이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남과 북을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백성들의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한편 하나님은 당시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다윗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일차적으로 다윗 왕권과 성전에 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구속주가 되심으로써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예수의 왕권과 왕국 건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예언적 언약이다.

끝으로 8-10장은 다윗의 주요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에 대하여 다룬다.

다윗의 정복전쟁은 사방으로 이루어졌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북으로는 아람 족속의 나라 들을, 동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하였다. 9장에서 르비보셋을 선대한 사건은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의 한 일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11-20장은 다윗의 불순종과 그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1부에서 다룬 다윗의 성공 및 번영과 대조되어 다윗의 범죄 곧 밋세바 간음 사건 및 우리아 살해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왕국에 닥친 연속적인 시련에 대하여 다룬다.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새 왕으로 다윗 언약까지 허락받았던 다윗은 일순간 영육 간에 나태에 빠진 결과 정욕의 유혹을 받아 밋세바와 간음을 하는 죄를 범하고 만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밋세바의 남편으로서 자신과 나라에 충성스럽던 우리아를 대적의 손을 빌어 살해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다(11장).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다(12장). 이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만은 치러야 했다. 간음으로 낳은 아이의 죽음(12:15-23), 암논의 다말강간(13:1-22), 압살롬의 암논 살해(13:23-33)와 반란(15:1-18:33), 세바의 반란(19:1-20:26)은 모두 다윗이 뿌린 죄의 열매들이었다. 특별히 여기서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 다윗 환궁 과정에서 그 절차 진행의 주도권을 둘러싼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의 분쟁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즉 다윗의 환궁 절차에서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다른 지파가 향후 다윗 왕국에서 소외될 것을 알고 유다 지파와 다투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소속의 세바가 열 지파 사람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 반란은 요압에 의해 진압되기는 하였으나 이때부터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가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은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중요한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2부의 내용은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인간 중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줌과 동시에 죄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울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면서도 회개하면 죄인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진리를 깨우쳐준다.

끝으로 제3부 21-24장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사울 후손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다윗왕국 초기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서의 뒷부분을 후기 형식으로 쓴 것 같다. 이 부분은 전후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A 사울 왕국의 언약함(21:1-14)

B 영웅적 이야기: 다윗의 용사들(21:15-22)

C 다윗의 찬양(22:1-23:7)

B' 영웅적 이야기: 다윗의 용사들(23:9-39)

A' 다윗 왕국의 언약함(24장)

결국 이 부분은 사무엘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메시아인 다윗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전후 대칭구조는 본문에서 다윗의 찬양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용사들의 힘이 컸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이 구조의 가장 바깥 부분에서는 사울이나 다윗은 결국 언약한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약을 어겼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온역이 온 나라에 3일간 임했다. 결국 다윗은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동시에 사무엘하의 후반부에서 다윗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왕권이 미완임을 나타내며, 성전으로 상징되는 안식도 아직 미완임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다.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허락되고 안식도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 이뤄지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다윗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온역이 임했지만 이를 통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게 되고 바로 이곳이 성전 터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여 준다. 인간의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의 연장선상에서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 사무엘서는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말하므로 그 왕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을 세우셨음을 증언한다. 또한 다윗의 언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의 아들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는다. 그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불완전하여 그 뒤를 이룰 아들이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왕이다. 뒤에 온 평강의 왕 솔로몬도 참된 왕은 아님을 열왕기는 보여 준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참된 왕,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게 된다. 그가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와 연관되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과 법궤다. 성전도 다윗에게 약속되고 법궤도 엘리 시대부터 방황하던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된다. 드디어 앞으로 짓게 될 성전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것을 본다.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안식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도 그림자에 불과하다. 참된 성전, 하늘의 성전이 임할 때 참된 여호와와 통치가 이루어진다. 사무엘하는 이러한 구원사의 과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증거 하고 있다.

02

수요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1~15

새찬송가 272장

- 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 2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 3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 4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 5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 6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 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 8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 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할 때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 10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 11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 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 14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 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

말씀 암송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



1~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경계하십니다. 2~6절은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한 스스로의 판결이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판결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는 것, 바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엄한 말씀 앞에 곧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에 긍휼의 은혜, 용서하심을 주셨습니다(13절). 하지만, 죄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Q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기지 않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3

목요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사무엘하 12:16~31

새찬송가 90장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8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19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1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22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4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26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27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28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 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29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30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1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암송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 1:6)



16~25절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아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중병에 들자 치유를 위해 일주일이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의 죽음 후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겸허한 순종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6~31절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1장 25절에 연결된 것으로 다윗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7:13)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심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Q 다윗처럼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04

금요일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사무엘하 13:1~14

새찬송가 456장

- 1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 2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 3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 4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 5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 6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체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 7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 8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 9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 10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 11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 12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 13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 14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말씀 암송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귀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고전 3:19)



1~14절 심히 간교한 자라

다윗의 장자 암논은 이복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났습니다. 다윗 왕가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징계였습니다. 암논은 그의 친구 요나답의 충동에 따라 범죄하였습니다. 불량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선한 유익이 없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다말이 거부하였고, 설득하였음에도 암논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탄의 미혹은 성도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Q 마음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05

토요일

미움이 사랑보다 더한지라

사무엘하 13:15~22

새찬송가 280장

- 15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 16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 17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빋장을 지르라 하니
- 18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빋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 19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 20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 21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 22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암송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1:8)



15~17절

암논은 결국 이복누이를 겁탈합니다. 그런데 이후 그는 누이를 심히 미워합니다. 방금 전까지 병이 날 정도로 애모했던 자를 성적 욕구를 채우고 나니, 이제는 사랑이 미움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일단 육체적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심한 수치감과 허탈감,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게 됩니다. 결국은 애초부터 다말을 향한 암논의 애정은 인격적인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기에 욕구가 충족되자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18~1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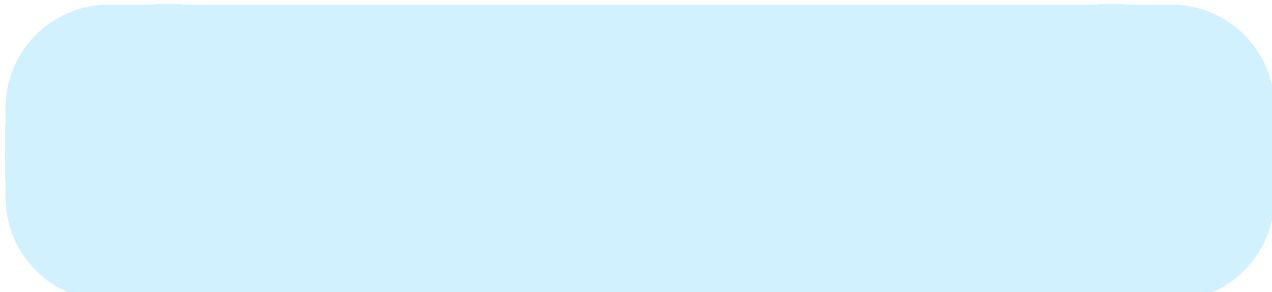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채색 옷을 입기에 다말은 이 옷을 입었는데,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면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는 자신의 수치스럽고도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고뇌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동입니다(삼상4:12; 왕하5:8).

20~22절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은 동생의 일로 분노하였지만, 그 분을 마음속에 2년이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여동생에게 잠잠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미워하여, 암논에 대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고, 간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암리에 복수의 흥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엄하게 징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3:11에서 '여호와와 경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나는 잘못에 대한 준엄한 징계를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06

주일

암논을 치라

사무엘하 13:23~39

새찬송가 420장

23 만 이 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이 있으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4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 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25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이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6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7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28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30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1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2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33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34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35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36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7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8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삼 년이라
39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말씀 암송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14:14)



23~2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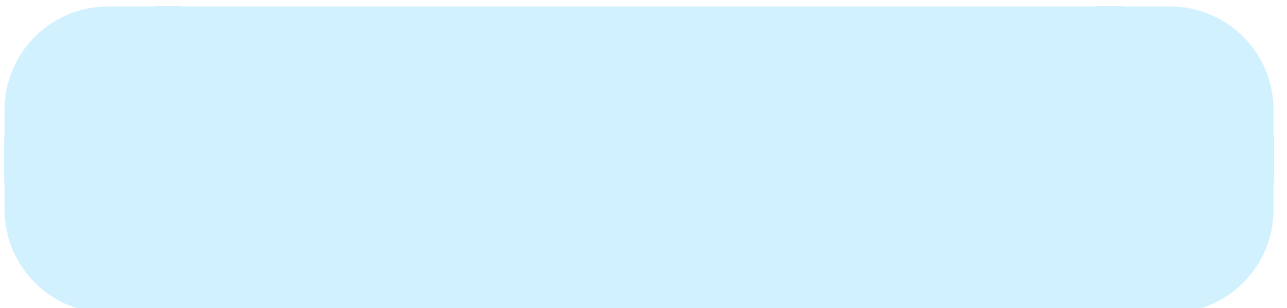
암논의 범죄 이후 2년이 지나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양털 깎는 일에 신하들과 같이 가도록 간청을 하지만 다윗 왕은 누가 된다는 빌미로 거절을 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그렇다면 형인 암논이라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왕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냅니다. 결국 왕이 아들을 보냈기에 암논은 따라갔고 결국 거기서 살해됩니다.

30~39절

다윗은 장자인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에 통곡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간 후 슬퍼합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닌 아버지로서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자기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나단의 책망 후 회개하며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그의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삼하12:10-12)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짧은 인생에서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영원한 것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일로서 통곡하며 슬퍼만 하지 말고, 영원을 위하여 오늘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된 일 등을 잘 분별하여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07

월요일

압살롬이 돌아오다

사무엘하 14:1~23

새찬송가 435장

1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2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3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4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5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6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7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8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9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10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11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2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13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4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15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쭙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6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17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18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 하옵소서
 19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20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21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23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말씀 암송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119:165)



1~3절

요압은 다윗 왕이 왕자 압살롬의 망명 생활을 측은히 여기고 있음을 알고, 드고아에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계락을 꾸밉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4~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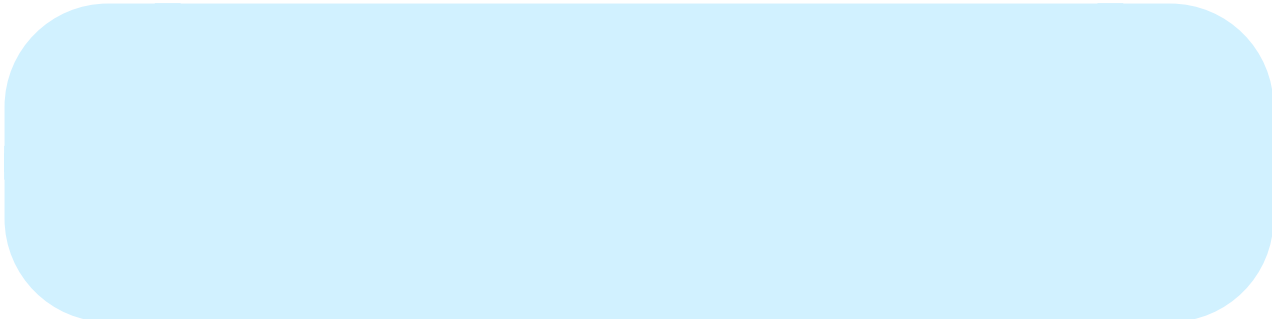
요압은 다윗 왕을 설득시키는 일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문이 난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 왕에게 가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 여인은 능숙한 언변과 아침으로 다윗 왕의 부정(父精)을 자극시킴으로써 동생을 죽인 자도 용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는 결국 왕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와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입니다.

12~20절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논리 정연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여, 형제를 죽인 범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끔 유도합니다. 다윗은 과부인 이 여인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의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여인을 도와주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인은 왕을 찾아온 본론을 꺼냅니다. 지금까지 겸손히 탄원하던 태도를 바꾸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처사를 대담하게 책망합니다. 그녀는 점진적으로 그 의미를 자신의 상황과 결부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결국 압살롬의 손에 암논은 죽었지만 언젠가는 죽을 자가 죽은 것이며, 이제 압살롬을 죽인다고 해도 죽은 암논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런 감정의 표현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또 감정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감정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이성,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감정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도록 합시다.



08

화요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4:24~33

새찬송가 360장

- 24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 26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 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더라
- 27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 28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 29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 30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발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발에 불을 질렀더니
- 31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 32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 33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말씀 암송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삼하14:33)



25~27절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본문은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서술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그와 비교할 자가 없었다. 이런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받은 이유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압살롬은 일 년에 한 번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자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다. 이것은 2.6Kg이 넘는 무게다. 압살롬은 이런 무성한 나무 때문에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하는데 아름다움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28~33절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는 2년 동안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러나 아직 왕을 만나지 못하는데, 다윗의 진노가 아직도 컸고 그 때문에 왕실의 식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데 요압은 두 번이나 압살롬에게 응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방법을 통해 요압과의 대화를 성사시킨다. 남의 밭에 불을 놓는 것은 범죄이지만 본문은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요압을 통해 자기를 왜 그술에서 데려오게 했는지 묻게 한다. 그리고 만일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죽여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죽이라는 뜻이기보다는 자신의 요구를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이런 모습은 압살롬이 자기가 의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서술된다. 14장 전체에서 다윗은 왕으로만 불리는데, 이는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가 부자로서의 관계는 깨졌음을 의미한다.



Q 참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09

수요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사무엘하 15:1~12

새찬송가 259장

- 1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 2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 3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 4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 5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 6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 7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 8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 9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 10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 11 그 때 청함을 받은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이라
- 12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말씀 암송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삼하 15:6)



1~6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말들과 50명의 호위병을 마련한다. 이것은 실제로 왕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후에 '내가 왕이 되리라'고 명백하게 자기 의도를 드러낸 아도니야도 같은 행동을 한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한다.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줌으로 민심을 얻고, 백성의 송사가 왕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재판관이 되면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이런 압살롬의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7~12절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은 4년 후에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한 자기 서원을 헤브론에서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술에서 돌아온지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부탁을 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 왕은 압살롬의 청을 들어준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도착하여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며 닦아 놓은 기반을 이용하여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일제히 외치게 한다. 이 말은 왕의 취임 때 뿐 아니라 소위 여호와의 등극 시편에서 여호와가 세상의 왕이심을 공포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도 있었다. 그는 길로에서 헤브론으로 와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성공적이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된다.



Q 나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

목요일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사무엘하 15:13~29

새찬송가 282장

13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5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16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17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18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밋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육백 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19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20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1 잇대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 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22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24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25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27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28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29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말씀 암송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삼하 15:23)



13~18절 일어나 도망하자

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이 전령은 압살롬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다윗의 추종자일 수 있다. 다윗이 서둘러 도망친 것은 성이 포위되어 폐허가 되는 것을 막거나 포위된 성 안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왕이 나가매'라는 16절의 말이 17절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범죄를 강조하기 위한 말로 보인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한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선언하신 심판에 대한 실현으로 설명된다.

19~29절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은 가드 사람 잇대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말하지만 잇대는 룿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한 것처럼 죽어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답한다. 외국인이지만 다윗에 변치 않고 충성을 보이는 그의 모습은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잇대의 대답과 함께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 길을 건너가게 된다. 이는 다윗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어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다시 성으로 돌려보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고백하며, 예루살렘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내 성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하게 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Q 내가 최선을 다 할 것과 온전히 맡길 일은 무엇입니까?

11

금요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5:30~37

새찬송가 383장

- 30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 31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 32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새가 옷을 찢고 흠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 3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 34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 35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 36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 37 다윗의 친구 후새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말씀 암송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 12:3하)



30~37절

아히도벨은 약은 꾀로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이유를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그가 다윗이 취한 밧세바의 조부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죄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모사꾼인 후새를 다윗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새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어 아히도벨의 모략을 간파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다급하게 도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략을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기도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Q 자식이나 친구가 배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

토요일

속이는 자와 저주하는 자

사무엘하 16:1~14

새찬송가 90장

1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이백 개와 건포도 백 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2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3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4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9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13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4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말씀 암송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삼하16:12)



1~4절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몸을 피할 때, 므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을 돕는 척하면서 사울 왕가의 재산을 착복하려고 했습니다.

5~8절

시므이는 독한 말로 저주했습니다.

9~14절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Q 약함을 이용하는 인간들과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13

주일

후세의 위장전향과 아히도벨의 계략

사무엘하 16:15~23

새찬송가 420장

- 15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 16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 17 압살롬이 후새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 18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 19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 20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 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 22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이스라엘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 23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말씀 암송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 6:2,3)



15~19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17절)"라고 한 것을 보면, 후세와 다윗 왕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세는 죽음을 무릅쓰고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했습니다. 이는 육체는 친구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하였지만 마음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3절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근친상간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쓸 수 있습니까?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14

월요일

아히도벨의 계락을 물리침

사무엘하 17:1~14

새찬송가 15장

- 1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 2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 3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 4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 5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 8 또 후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 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 9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엿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 10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
- 11 나는 이렇게 계락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 12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 13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 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말씀 암송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엡 5:6)



1~4절

아히도벨의 전술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은 무사들이 아니었고, 매우 지친 상태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14절

아히도벨의 명석한 전술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택하여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영웅심리를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가시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봅시다.

15

화요일

아히도벨의 죽음

사무엘하 17:15~29

새찬송가 79장

- 15 이에 후새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락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락을 세웠으니
- 16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 17 그 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스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 18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 19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찜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 20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 21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락을 세웠나이다
- 22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 23 아히도벨이 자기 계락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 24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 25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 26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 치니라
- 27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 28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 29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말씀 암송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4:13)



15~20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간파한 후사는 다윗에게 밀사를 파견하여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다윗일행은 압살롬의 추격이 개시되기 전에 요단을 건너 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아래에 있는 한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21~29절 비천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후사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라는 두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한 계집종'을 시켜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그녀는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또 그때에는 경계가 심할 때라서 남자가 성 밖으로 나간다면 분명 첩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천한 종은 그러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Q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16

수요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사무엘하 18:1~8

새찬송가 351장

- 1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 2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삼분의 일은 요압의 휘하에, 삼분의 일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삼분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 3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 4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 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 6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 7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 날 그 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 8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말씀 암송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6)



1~4절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합니다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라 제대로 된 군사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대군에 비해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차분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전투하기 효율적으로 재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도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8절 전쟁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무기도 빈약하고, 훈련된 군사들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숫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군대를 이깁니다. 전쟁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Q 나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

목요일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하 18:9~18

새찬송가 298장

- 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 10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 11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버지 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 13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 14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 15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 16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 17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 18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 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말씀 암송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9~13절 압살롬의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9절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쳤다고 하는데 이는 압살롬이 아주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을 만난 것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고,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우연히 나무가 상수리나무에 걸린 것은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만 다윗왕조 자체는 계속 유지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14~18절 주인의 마음보다 자기 욕심이 앞섰던 요압

다윗은 요압과 군대장관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 앞에서 이 명령을 함으로써 비록 반역한 압살롬이라도 그의 생명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을 때 이를 발견한 병사는 그를 죽이지 않는 것도 다윗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기의 왕인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나 열정보다 우리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Q 나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고 있습니까?

18

금요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우니라

사무엘하 18:19~33

새찬송가 446 장

19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0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21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음질하여 가니
22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이 너는 왜 달려 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23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음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가니라
24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 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25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26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7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달음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달음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28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29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30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31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

말씀 암송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잠21:8)



19절

'아히마아스'. 다윗이 예루살렘 안팎에 심어 놓은 첩보망의 일원(15:36; 17:17)

20절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듣고 표출될 분노로부터 아히마아스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3절

이 달리는 전령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경로를 택했을 것이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골짜기를 통과하는 '들길로' 달음질한다(왕상7:46). 구스 사람은 산지를 경유하는 더 짧은 경로를 택했을 것이다.

29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또는 '젊은 압살롬에게 평화가 있느냐'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 아히마아스의 대답은 모호하다. 그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조심스럽게 애썼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전혀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33절

다윗은 '압살롬'을 세 번 외치고, 다섯 번이나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비탄에 빠져 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틀어진 상태를 돌아보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Blank space for reflection or answer.

19

토요일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된지라

사무엘하 19:1~8

새찬송가 338장

- 1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대 하니
- 2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 3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 4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니
- 5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 6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 7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 8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말씀 암송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잠17:10)



2~3절

다윗의 슬픔은 병사들의 큰 승리를 무색하게 만든다.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한 군대는 보통 팡파르를 크게 울리며 고향으로 행진하다.

5~6절

요압은 다윗이 병사들에게 수치심을 안긴 것에 대해 비난한다. 병사들은 다윗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도 왕은 병사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다윗은 온 군대를 잃더라도 압살롬이 살아 있기를 바랐다.

7~8절

요압은 다윗이 부하들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준다. 다윗은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다윗은 성문으로 돌아가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Q 큰 슬픔에 빠진 다윗에게, 요압은 적절한 조언으로 다시 왕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조언자(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또 내가 조언자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swers.

20

주일

다윗의 귀환 준비

사무엘하 19:9~15

새찬송가 218장

9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0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1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2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13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4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말씀 암송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80:7)



11~12절

다윗은 유다에게 자신을 지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북쪽 지파들로부터 얻은 지원을 이용한다.

13절

'아마사'. 패배한 압살롬 군대의 장군(17:25). 따라서 다윗이 그에게 왕의 군대를 이끌도록 엄숙히 맹세시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해서 요압이 왕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압을 군대 지휘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18:5). 왕은 아마사(다윗의 조카)를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두 군대를 화해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15절

길갈. 아마도 이곳은 요단 골짜기 여리고 북동쪽에서 2.4킬로미터 떨어진 곳. 길갈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다(수4:19).



Q 삶을 정리하고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정돈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21

월요일

시므이와 므비보셋

사무엘하 19:16~30

새찬송가 543장

16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7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18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21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22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5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26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29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발을 나누라 하니
30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 암송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삼하19:27)



16절

'시므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했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의 친척(16:5-14). 그는 권력을 회복한 다윗에게 찾아와 사죄하고 자비를 구한다.

17절

시바는 다윗에게 다시 굽실거리는 인물이다. 시바는 명백히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고, 므비보셋을 배반했다(9:1-13; 16:1-4). 시바는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달려온 무리에 속한다.

23절

시므이에 대한 복수를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분명히 실행된다. 기록된 마지막 행적으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복수를 요청하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은 뒤 이 요청에 따라 행동한다(왕상2:8-9, 36-46).

28절

므비보셋은 왕의 처분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긴다. 그는 대부분의 새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집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므비보셋은 자신이 왕에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한다.



Q 오늘날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22

화요일

다윗과 바르실래

사무엘하 19:31~43

새찬송가 420장

31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 바르실래는 매우 늙어 나이가 팔십 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33 왕이 바르실래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34 바르실래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5 내 나이가 이제 팔십 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36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38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39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0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41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42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43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말씀 암송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삼하 19:39)



31-33절 바르실래가 다윗을 환송하다

다윗의 예루살렘 환궁길에 길르앗의 노인 바르실래가 나와서 환송합니다.

바르실래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음식과 필수품들을 공급해 주기도 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않고 바르실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살 것을 권유합니다.

34-39절 바르실래가 다윗의 청을 정중히 거절하다

시므이에 대한 복수를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행된다. 기록된 마지막 행적으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복수를 요청하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은 뒤 이 요청에 따라 행동한다(왕상2:8-9, 36-46).

41-43절 유다지파의 환궁을 주도함을 이스라엘이 항의함

다윗의 환궁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다지파의 모습을 보고 항의합니다. 유다지파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지않고 더 강경하게 주장하여 결국 다윗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고 반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Q 나의 왕되시는 주님께 겸손함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3

수요일

아마사의 죽음

사무엘하 20:1~13

새찬송가 400장

- 1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 2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 3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 4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삼 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 5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 6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 7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 8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 9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 10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 11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 12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 13 아마사를 큰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말씀 암송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삼하20:10a)



1-3절 다윗의 권위가 흔들리다

다윗의 환궁문제로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바가 선동해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유다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게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왕궁을 지키도록 한 후궁 열명을 잡아 가둡니다. 아들에 의해 몸이 더럽혀진 후궁들을 일반적으로는 죽여서 치욕을 씻어 내지만 다윗은 그들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고 대신 별실에 가두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7-10절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고 주도권을 잡다

유다지파로만 군대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연합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만나자 그를 살해하는데 허리에 맨 칼이 빠져 떨어졌는데 손에 있는 칼로 아마사를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요압은 아마사를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냉철하고 치밀하며 잔인하게 살해한 전력이 있는 장수였기 때문에 요압은 아마사를 방심시키기 위해 칼이 없는 척하여 인사를 하는 척 접근하고 칼로 단번에 치명상을 입혀 살해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압을 단번에 다윗의 의도를 뒤집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Q 내 뜻과 유익을 위해 불의한 방법을 행한일이 있습니까?

24

목요일

세바의 반역과 죽음

사무엘하 20:14~26

새찬송가 272장

14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15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6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17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18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19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데도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20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이다 하고

22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23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24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25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26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말씀 암송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삼하20:22)



14-22절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다

요압이 세바가 있는 아벨성을 함락하여 반란을 진압하려 하자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나와서 반란자 세바를 내어줄테니 성의 평화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 성 사람들을 설득해 세바를 요압에게 내어주고 요압은 반란을 진압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23-26절 다윗이 행정조직을 정비하다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다윗은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왕권을 유지합니다. 다윗은 잔인하게 무고한 아마사를 죽인 요압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했지만 공로가 컸기에 이를 덮어두는 선택을 합니다.



Q 불의한 방법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25

금요일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다

사무엘하 21:1~14

새찬송가 500 장

- 1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 2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 3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와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 4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 5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 6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온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 7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 8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 9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 10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굶은 베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 11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 12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뽕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 13 다윗이 그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 14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씀 암송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삼하21:14)



1-14절 3년 기근과 기브온인의 사울의 후손 처형

다윗 시대에 3년 기간이 임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은 사울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브온인들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할것인지를 묻자 자신들을 멸절시키려고 한 사울의 후손들 일곱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요구를 들어주는 가운데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은 아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고 사울의 아들 중 동명이인인 므비보셋은 죽임을 당하는 상반된 장면을 보게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Q 불의한 방법과 죄악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26

토요일

다윗의 용사들

사무엘하 21:15~22

새찬송가 21 장

15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16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삼백 세겔 되는 놋 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논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17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니 그 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8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삼을 쳐죽였고
19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틀 채 같았더라
20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 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2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말씀 암송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1~17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지친 나머지 하마터면 블레셋의 장수 이스비브놉에게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다윗이 죽는다면 다윗의 용사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아비새를 통해 도와셔서 아비새가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지속되다 보면 자칫 피곤해져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비새를 통해 다윗을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18~22절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워 이깁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성도들 간의 도움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전 4:12). 혼자 의 힘으로 싸워나가기엔 힘들지만 서로 도우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중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또 어려움을 당해 홀로 고군분투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성심성의껏 돕고 보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일에 힘쓰고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Q 지금 영적 싸움에 지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27

주일

자연을 이용한 하나님의 계시

사무엘하 22:1~20

새찬송가 543장

- 1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 2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 3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 4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 5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 6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 7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 8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으로다
- 9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 10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 11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 12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 13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숲불이 피었도다
- 14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 15 화살을 날려 그들을 홀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 16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 17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 18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으로다
- 19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 20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말씀 암송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삼하 22:2)



1~3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2,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써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창조주이시며 세상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놀랍고 감격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세상에 살며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4~20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능히 피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Q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28

월요일

의인을 구원하심

사무엘하 22:21~31

새찬송가 436장

21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으로다
24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6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28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29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1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 암송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삼하 22:31)



본문이해

21~31절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본문엔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의 원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지킨 다윗 자신에게 행한 의를 따라 상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끗하심 곧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사 곤고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사악함에 대하여 분명 거스르심을 보이실 것이며 교만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의인은 그 행한 바대로 상을 얻고, 악인은 그 행위를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응의 원리를 기억함으로 매사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삽시다.



적용질문

Q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매일 만나

2022. 2.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손아론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

福

